



창용리공소(둔포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주님 세레 축일 | 2025년 1월 12일(다해)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화답송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신입복사단 캠프
2025년 1월 16일(목)(1차), 1월 17일(금)(2차)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삼위와 함께 또한 성사와 함께



노승준 세례자요한
천안봉명동 주임

주님 세례 축일 강론을 세례자 요한인 저를 통하여 쓰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연인 세례자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지고, 주인공인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말씀'으로 깊게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은 연중 시기의 시작입니다. 연중 시기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들과 함께하시고 가르치시며 보내신 3년 동안의 공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공생활을 세례로 시작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또한 죄를 씻고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자리에 계십니다. 시작을 삼위께서 함께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공생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어둠으로 침묵으로 죽음으로 함께하신 삼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창조 때에도 말씀으로, 기운과 숨으로, 의지와 섭리 그리고 보시니 참 좋아하셨던 마음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삼위께서 함께하시니, 마지막 종말 때에도 함께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영광되이 함께하려 할 때 그 마침까지 주님과 함께일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엄청 감각적이고 성사적입니다. 성자께서는 흐르고 씻겨지는 물을 느끼셨을 것이고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체로 눈에 보여줍니다. 성부께서는 귀에 들리게 하늘에서 "아들~ 아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들~ 아들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에 거룩한 향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비감각적인 주님께서 이처럼 감각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성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 주변의 어떤 분이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알고 보고 먹고 맡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성사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면, 나는 성사적 삶을 통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찬미하는 것이 될 테고, 나에게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세례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고 다독이고 치유하고 매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우리도 성사적 인간이 되어 주님 사랑과 은총을 느끼게 해주는 주님의 거룩한 일(聖事)을 성사(成事)시킬 것을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



교회법은 스스로 절대적이길 원치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은 딱딱하고, 엄숙하며,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에 ‘법’이라는 엄격함이 더해져 있으니, 그런 오해를 살 법도 합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로마로 향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회법을 공부하면서 참 따뜻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은 가능한 많은 것을 배려하려는 교회의 ‘마음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법이 왜 중요합니까? 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기에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들만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은 그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하느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일 것입니다. 법보다 하느님과 사람이 더 중요하며,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법이 지켜지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교회법이 지켜지는 것보다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법 사이의 충돌 안에서 보편법보다 지역교회법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일반교령보다는 개별교령을 더 존중하며, 그 가운데서도 ‘관면’이라는 제도를 두어 개별적인 상황을 배려합니다. 법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 안에서 교회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교회법은 스스로 법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배려하기 위한 단서 조항들을 달아놓습니다. 또한, 관면 제도를 열어두어 신자들의 선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의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모든 이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정된 교회법은 스스로 절대적이길 원치 않습니다.

● 김솔 노엘 신부 사목복지국 차장



공동체로 스며드는 생태 사도들

2. 새 옷 대신 새로운 옷! - 서원자 글라라(대전교구 여성연합회장)

10년 전 봄, 꽃무늬 원피스를 샀다. 붉은 장미와 잎이 그려진 하얀 원피스였다. 입으면 마음도 환하고 밝아져서 좋아했다. 한 해 두 해 원피스에는 즐거운 추억이 쌓였다. 축하의 자리에도 입고 가고, 공연도 가고, 가족과 함께 분위기 있는 저녁을 즐길 때도 있었다.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옷장 속에서 원피스를 꺼냈다. 입어 보니 전만큼 예쁘게 보이지 않았다. 오버 사이즈 옷이 유행하는 시기라 몸에 끼지는 않아도 조금 넉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몇 번을 매만지다 다시 옷걸이에 걸어 넣어두었다. 새 옷을 사야 하나? 옷을 오래 입는 것이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실천인데...

며칠 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시 옷장을 열고 원피스를 꺼냈다. 원피스는 여전히 짙고 화사했다. 플레어 스커트와 칼라는 그대로 두고 넉넉한 품의 블라우스를 덧대면 어떨까? 옷장 속에는 맞춤형에 검색 블라우스도 있었다.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재봉 상자를 꺼내고 가위로 원피스를 잘랐다. 원피스 허리는 재봉틀로 손질하고, 칼라 부분은 손바느질을 했다. 순식간에 원피스가 투피스로 변신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원피스의 화사함을 간직하면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다. 새 옷 대신 새로운 옷이 생겼다!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사제수품 소감문

2025년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서품식

일시 2025년 1월 14일(화) 10시 30분 장소 주교좌 대흥동성당
집전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김동운
바르톨로메오

첫미사
1.15(수) 오전 10:30
문화동성당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시편 119,18)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동본당 김동운 바르톨로메오입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자비로운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어둡고 메마른 길을 지나온 ‘다음에야 저를 이끄신 분이 주님임을’(에제 37,6 참조) 알아차리는 눈먼 사람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도 사제로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는 겁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달힌 눈을 열어주시고 새 마음과 영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제로 사는 동안에는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 가르침의 기적들을 제가 바라보오리다.”(시편 119,18)라는 말씀을 품고,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매 순간이 기적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자들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구
프란치스코

첫미사
1.15(수) 오전 10:30
탄방동성당

“행복하여라.”(마태 5,3)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사제서품을 받게 된 탄방동본당 김한구 프란치스코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사제직으로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돌보아주신 자비로운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느끼는 부족함과 나약함은 저를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제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과 자비 안에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며 영원한 행복의 길에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할 때의 행복을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을 알기에,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겸손되어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교희
도미니코

첫미사
1.15(수) 오전 10:30
온양성당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찬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서품을 받는 이교회 도미니코입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이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서품을 받기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느님과 여러 신자분들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습니

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육화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제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신자분들 그리고 복음화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제직의 삶 안에서 “무엇을 찾느냐?”라는 성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향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
대건안드레아

첫미사

1.15(수) 오전 10:00
온양풍기동성당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6-18)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품을 받게 된 온양풍기동본당 출신 이대현 대건안드레아 부제입니다. 하느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당신 사제직으로 부르시어 제가 당신 안에서 사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부족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당신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시며, 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살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 품에서 참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 또한 그런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고, 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며, 누구보다 섬기는 자세로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머물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사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범기
이냐시오

첫미사

1.15(수) 오전 10:30
천안쌍용동성당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시편 51,17)

찬미 예수님! 지극히 부족한 저를 사제로 불러주신 자비하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더불어 사제품을 받기까지 양성해주신 교회와 기도와 후원으로 동반 해주신 신부님들과 은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신학교 양성 과정과 사제품을 준비하면서 체험한 살아계신 하느님을 언제나 찬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진정으로 찬미할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하였기에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며 찬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청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짐을 잊지 않으려 서품성구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라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로 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모든 사람을 불러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모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박병현
마르티노

첫미사

1.15(수) 오전 10:00
둔산동성당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지혜 1,1)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사제서품을 받는 둔산동본당 출신 박병현 마르티노입니다.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제 직무의 은총을 앞두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해 처음 지녔던 열정, 그 첫 마음으로 되돌아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사제 직무의 사명 앞에서 지금 품고 있는 첫 마음, 곧 “순수한 마음”(지혜 1,1)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더욱 깊이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순수하고 겸손한 사제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 분에 넘치는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비표 지참 시 입장 가능(우편을 통해 각 수품자 본당으로 발송)
- 가톨릭 문화회관 아트홀에서 영상을 통하여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영상 중계
천주교 대전교구 홈페이지(<https://www.djcatholic.or.kr>),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



“주님,
사제 **윤영균(미카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본 교구 사목자이신 윤영균(미카엘, 성사전담, 1964년 서품) 신부님께서 2024년 12월 30일(월) 08시 00분에 선종 하셨습니다.

고인의 장례 미사는 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주례, 총대리 주교님과 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장례 미사 후, 신부님은 대전교구 성직자 묘원(하늘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력

- 1938.11.20 부여 출생
- 1964.12.18 사제성품(출신성당 : 장항성당)
- 1964.12.18 천안오룡동성당 보좌신부
- 1966.02.01 홍성성당 주임신부
- 1969.03.02 문창동성당 주임신부
- 1971.10.28 교구청 관리국장
대전성모병원장 (겸임)
- 1972.12.27 공주중동성당 주임신부
- 1975.09.02 해외유학 (독일 체류)
- 1976.12.08 서울소신학교
- 1977.02.17 부여성당 주임신부
부여성요셉병원장 (겸임)
- 1982.02.25 부여성요셉병원장 (면)
- 1984.01.31 당진성모병원장
- 1984.11.15 교구청 사무처장
- 1985.07.01 교구청 총대리
- 1987.02.12 교구청 부교구장
- 1989.08.31 주교좌 대흥동성당 주임신부
- 1994.08.11 신태덕성당 주임신부
- 1999.02.04 용전동성당 주임신부
- 2004.02.03 조치원성당 주임신부
- 2008.01.31 성사전담
- 2024.12.30 선종

희년 전대사 지정 성지(순례지)

(1) 전대사 기간 : 2024년 12월 24일(화) ~ 2026년 1월 6일(화)

(2) 전대사 지정 성지(순례지)

- ① 강경성당 ② 갈매못성지 ③ 공세리성당 ④ 다락골성지 ⑤ 대흥봉수산순교성지
- ⑥ 덕산순교성지 ⑦ 산막골성지 ⑧ 샅티성지 ⑨ 성거산성지 ⑩ 솔미성지 ⑪ 신리성지
- ⑫ 여사울성지 ⑬ 진산성지 ⑭ 합덕성당 ⑮ 해미순교자국제성지 ⑯ 홍주순교성지
- ⑰ 황새바위순교성지 ⑱ 주교좌 대흥동성당(추가) ⑲ 수리치골 성모성지(추가)

(3) 전대사를 얻기 위한 통상적인 조건

가. 전대사 지정 성지(순례지) 방문 나. 성체 조배와 묵상 다. 주모경 라. 사도신경

QR 코드를 스캔하면 전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정하상교육회관 프로그램 안내

피정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제	일정	피정지도	피정비
순교영성피정 1차 시작 15:20 마침 16:00 2차 시작 14:30 마침 16:00	1차 순교자의 모후 2차 순교자의 길을 따라	1차 08.23.(토) ~ 24.(주일) 2차 11.01.(토) ~ 02.(주일)	김재덕 신부 박상은 신부 김성태 신부 하태연 신부 공성식 신부 이태종 신부 김정원 신부 한국순교복지 수녀회	110,000
선교교육 (1박 4식) 시작 09:30 마침 17:00	가톨릭 복음선교 교육 1박2일 1. 새 가족 찾기 2. 쉬는 교우 찾기	쉬는 교우 찾기 05.31.(토) ~ 06.01.(주일) 새 가족 찾기 08.30.(토) ~ 31.(주일) 쉬는 교우 찾기 10.18.(토) ~ 19.(주일)	안동훈 신부 김경호 신부 정윤준 감사 외 전문교사	120,000
하루영성피정 시작 09:30 마침 16:30	예비자와 새 영세자를 위한 가톨릭 신앙심화피정	03.16.(주일) / 04.06.(주일) 07.13.(주일) / 07.27.(주일) 11.23.(주일) / 12.07.(주일)	김민희 신부	30,000
성령피정 (1박 4식) 시작 10:00 마침 15:00	신앙 성장을 위한 성령피정	06.14.(토) ~ 15.(주일)	김기범 신부 박희진 신부 윤진우 신부 김민희 신부 김경희 수녀 이미숙 수녀	120,000
효소단식 4박5일 시작 16:00 마침 13:00	비움과 충만을 향한 영적 여정 효소단식, 침묵, 복음서통독피정	06.09.(월) ~ 13.(금) 12.08.(월) ~ 12.(금)	김용태 신부 김민희 신부 임재영 감사	470,000
특별피정 시작 16:00 마침 13:00	김재덕 신부의 1박2일 말씀피정	01.25.(토) ~ 26.(주일)	김재덕 신부	110,000
	송봉모 신부의 1박2일 영성피정	06.07.(토) ~ 08.(주일)	송봉모 신부	110,000
	김종수 주교의 2박3일 말씀피정	09.05.(금) ~ 07.(주일)	김종수 주교	210,000
	김용태 신부의 1박2일 영성피정	12.27.(토) ~ 28.(주일)	김용태 신부	110,000
전례피정 시작 13:30 마침 16:30	미사! 기쁨의 피정	05.03.(토) ~ 04.(주일)	윤진우 신부	110,000
생태피정 (1박 4식) 시작 10:00 마침 16:00	찬미받으소서 통독 피정	05.28.(수) ~ 29.(목) 09.03.(수) ~ 04.(목)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120,000
시노달리타스 시작 16:00 마침 17:00	시노달리타스 연수	07.10.(목) ~ 11.(금)	김영욱 신부 김민희 신부 박성명 신부	110,000
위령회원교육 시작 10:00 마침 16:00	일일 가톨릭 상장례 교육	03.25.(화) / 04.01.(화) 06.17.(화) / 09.30.(화) 10.21.(화) / 11.18.(화)	김대원 신부	50,000
	1박2일 가톨릭 상장례 전문 교육 (1박 4식)	1차 06.05.(목) ~ 06.(금) 2차 09.13.(토) ~ 14.(주일) 3차 11.29.(토) ~ 30.(주일)	김대원 신부 윤진우 신부 오종석 신부 박희진 수녀 양무석 교수	120,000
연도교육 시작 14:00 마침 15:30	상장예식 연도 초급 교육	1차 05.10.(토) ~ 11.(주일) 2차 06.28.(토) ~ 29.(주일)	김대원 신부 김득수 회장 한국전주교 연도보존회봉사자	110,000
	상장예식 연도 중급 교육	1차 11.08.(토) ~ 09.(주일) 2차 12.20.(토) ~ 21.(주일)		
장례지도사 교육 시작 14:00 마침 16:00	장례지도사 교육(300시간)과 가톨릭 상장례전문교육(80시간) (국가자격증 취득)	2025년 매월 금, 토, 주일 (총 11회) 일정은 추후공지 *2024년 12.13.(금) 정수마감	김민희 신부 김대원 신부 양무석 교수 최정복 교수 김형재 교수 서달원 감사 숙박비 전문교수진	총교육비 2,500,000 교육비 1,000,000 숙박비 1,500,000

김민희 신부의 맞춤피정

하루 피정 30,000원/ 1박 2일 피정 100,000원/ 2박 3일도 가능 (45명 이상)



정하상교육회관
St.J.Hasang Education Center

검색창에 '정하상교육회관'을 검색해보세요!

검색

전신자, 어르신, 단체, 견진(세례) 준비

신청 문의 : 044-863-5690~2, 010-8848-5690
자세한 프로그램과 오시는 길 : www.paulhasang.or.kr
주소 : (우) 30006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가톨릭대학로 30



Let's Start!

25.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서품 받은 신부님의 첫 미사를 봉헌하면, 꼭 안수식이 거행됩니다.
안수는 꼭 받아야 하나요? 안수는 무엇입니까?

안수 :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와 능력 및 자격을 수여하는 상징. 예부터 손은 축복을 이끄는 신체부위로 일반들에게서도 존중되었다. 구약에서는 장자권 상속(창세 48,14), 육체의 건강기원(1사무 17,21), 직권의 양도(민수 27,18-23), 죄의 이전(레위 8,9; 16,21)에 안수가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가톨릭대사전)

가톨릭 교회 교리서 699항에서는 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 더 나아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진다. 히브리서에서 안수는 ‘기초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는 성사 집전에서 성령 청원 기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주어짐을 의미하는 이 표징을 보존하였다.”

이 교리에 의하면, 안수는 성령을 상징하는 주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중략)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 8,15-17)”

따라서, 안수는 성령을 받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안수는 사람이나 사물을 축복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에게는 머리에 두 손을 정성껏 얹고 기도하고, 사물은 그 사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성사 안에서도 안수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고해성사 중 사죄경을 받을 때 사제는

손을 뺀어 기도하고, 성품성사 안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주기 위해 안수가 동반됩니다. 또한 병자성사나 다른 준성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안수의 의미와 새 사제들의 안수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새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엄청난 신비이자 은총입니다. 곧, 새 사제들은 이러한 은총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과 희망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힘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제를 통해 구체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안수는 “준성사”로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이들의 정성과 지향에 따라 은총의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받는다는 행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수를 받기 전 합당한 준비,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새 사제들의 첫 미사에는 순수하고도 온전한 봉헌, 축성된 새 사제의 정성 어린 미사라는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미사에 따른 은총의 양을 기능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거룩한 봉사자의 첫 발걸음에 함께 참여한 신자들 역시 새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사적 은총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 모집 : 2월 6일(목), 17시까지 ● 면접 : 2월 7일(금), 접수자 개별 안내 ● 문의 : (044)861-7230

모집 과정	수업 일시		과목
교리신학원	1학년	매주 화·목, 14:0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구약 성경, 철학, 교회사, 기초신학, 영성생활 • 예수그리스도, 교리교육의 실제, 전례와 성사 • 교부학, 교회와 평신도, 가톨릭과 타종교
	2학년		
전례음악원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공통 과목 : 전례와 전례음악, 그레고리오 성가 • 선택 전공 : 합창지휘법, 오르간, 성악, 가톨릭 전례음악 (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문의 요망) 	



홈페이지

본 당

천안아산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 대상 : 천안아산 지역의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신자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문의 : 010-4417-1136 (지휘자)
- 목요일반
 - 예비반 : 초등1,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3~중2(중3까지 활동) 연습 17:00~19:00
 - 고학년반 : 중2~고2 / 연습 19:00~21:00
- 금요일반
 - 예비반 : 초등1,2학년 / 연습 15:00~17:00
 - 정규반 : 초등3~중3까지 활동 연습 18:00~20:00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 생활 가능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김재덕 신부의 1박2일 말씀피정

- 때 : 1.25(토)~26(주일)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11만원
- 문의 : 010-8848-5690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무료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 상담방법 : 내방, 전화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2036, 624-3288

대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 : 미사 반주자
- 봉사시간 : 매주 금요일 11시
- 봉사장소 : 병원 상지관 5층 경당
- 자격 : 만 20세~65세 가톨릭 신자
- 문의 : 원목실 (042)220-9417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중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대상 : 성인, 청소년, 아동(종교 무관)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2025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2.11(화)~22(토)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 525만원 (대한항공)
- 2.19(수)~3.1(토) 이탈리아(11일) / 520만원 (대한항공)
- 3.24(월)~28(금) 나가사키, 고토(5일) / 195만원 (대한항공)
- 공동경비 별도(1인 1일 10유로)
- 맞춤형 순례 가능
- 문의·신청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 분도여행사 (02)852-8525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신년미사

- 때 : 1.23(목) 14:00
- 곳 : 원신흥동성당
- 집전 : 김재덕 신부
- 대상 : 전신자
- 문의 : 010-5435-8512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 : 1.16(목) 15:00
- 곳 :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대전교구 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전반 : 매주 수요일 19:00~21:00
- 세종반 : 매주 목요일 19:00~21:00
- 예비초3학년부턴~중3까지
- 문의 : 010-7921-3610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마리아 학교 3월 중반 수강자 모집

- 때 : 3.4~8.16 / 매주 목 20:00~22:00
- 내용 :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 33일봉헌 기도
- 접수 : 010-2724-4819 서울마리아학교

바로로탈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 과정 : 입문·중급·성바로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 우편과 이터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 원서 : <https://uus.pauline.or.kr> / 1.31(금) 마감
- 문의 : (02)944-0819~23, 010-5584-8945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 강좌 / 3월 개강

-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 영성과 철학상담 : 아픈 영혼을 '철학' 으로 치유하기
- 매주 화요일 19:00~21:00, 12주 과정
 -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 화요일반, 목요일반, 금요일반 : 19:30~22:00, 13주 과정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대상)
- 신청 :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초정성령회관 성모성심 세미나

- 때 : 2.7(금)~4.4(금)
 - 매주(금) 19:30~(토) 12:00
- 강사 : 두현자 회장, 임문철 신부 외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8:0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20 출발
청주교구 교구청 18:40 출발

수도회 및 피정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 (zoom)

- 때 : 3-11월 (주일) 16:00~18:00 (12만원 x 3회)
- 지도 :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성경 속 인물과의 만남 - 강 포에멘 신부

- 1차 : 2.5(수) 15:00~6(목) 13:00
- 2차 : 2.19(수) 15:00~20(목) 13:00
-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 12만원,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10-6791-0071(문자)

<p>김벨 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1588-5678 정부청사역 2번 출구</p>	<p>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로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p>	<p>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p>
<p>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p>	<p>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p>	<p>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어덕(바로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p>

소식

우리성서모임 32기 신입생 모집

- 우리성서모임 (창립 32주년) 신입생 모집
정규반(목) / 단기반(화,수,목 주1회 가능한 요일)
- 때 : 오전반 09:30~11:30 / 저녁반 19:00~21:00
- 곳 : 대전 중구 대흥로 62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 개강 : 3월 첫째 주간 / 입학미사 : 2.16(주일)
- 문의 : 예수수도회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 때 : 주 1회 매주 화요일 20:00~21:00
- 대상 : 20~45세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자 모집

-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계 영광을 봉헌하고자 하는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 &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성소부 문의 : 010-5195-3217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한라산포함 : 2.8~10, 2.14~16, 2.22~24
- 추자도포함성지순례 : 3.1~4, 3.9~12, 4.12~15, 4.27~30, 5.4~7, 5.26~29, 6.1~4
- 생태순례 : 3.17~19, 3.22~24, 3.28~30, 4.2~4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힐데가르드 영성학교2기 - 입문

- 때 : 1.31(금) 15:00~2.2(주일) 13:00
-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 25만원,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10-6791-0071(문자)

세종 메리워드 영성트랙강좌 3월 개강

-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피정(3.4) : 12주
- 영신수련강좌(3.5), 기도학교(3.6) : 10주
- 사별자 치유 프로그램(1:1동반) : 10주
- 문의 : 예수수도회 010-3081-1816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5년 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2.15~5.20 - 평일반 또는 토요일반
- 곳 : 섭리C.P.E센터 / 8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한라산눈꽃산행 : 2.7~9, 2.21~23, 2.25~27
- 자연순례 : 3.1~3, 3.8~10, 3.18~20, 3.29~31
- 추자도포함 : 3.13~16, 3.23~26, 4.5~8, 4.29~5.2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1.18(토) 14:00
- 곳 : 개화동 수도원(서울)
- 문의 : 010-3800-1579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강사 / 내용	비고
성시간	1.16(목) 19:00	강사 : 김기범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내용 : 미사, 성시간, 묵상 등	차량운행 : 지족역 2번 출구 19:10 대기출발
은혜의 밤	1.23(목) 19:00	강사 : 김덕재 신부(성서묵자리) 내용 : 말씀, 미사, 안수 등	



양업인쇄소 홈페이지 개설

양업인쇄소

성당에서 필요한 각종 양식, 봉투류
(미사예물봉투 및 대봉투, 소봉투 등)

성경필사용지+성경필사제본
(필사용지 A4, 8월 및 원하는 크기 제작가능)

소식지, 명함, 전단지, 스티커, 포스터

책자, 카탈로그, 리플릿, 현수막 등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 기관과 본당, 대전교구의 인쇄물을 담당해온 양업인쇄소에서는 모든 인쇄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업인쇄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471(대흥동) T.(042)254-5761 F.(042)222-7583 E-mail: djcatholic@kakao.com https://yangeob-print.com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85°C

총 모금 850,414,831원

[12.20~31 모금액] 45,189,047원
본당 27,086,869원 / 개인·기관·행사 18,102,178원

<p>보나투어 성지순례</p> <p>3/10 이집트 원벽일주 순례 13일 625만원 5/12 발칸 메주고리에 12일 585만원 5/25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7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p>	<p>바로세움병원</p> <p>척추·관절 집중치료 (MRI 2대) 원장 : 김경훈(요한), 김재환(필립보), 김대영(베드로)외 8인 협진 T. (042)489-8888 유선운천역 1번출구 5분거리</p>	<p>서울성모 이비인후과</p> <p>고압산소치료, 돌발성난청, 코골이 어지럼증, 면역 및 수액치료 전문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아트박스 건물 3층 3월 27일 개원예정 전문의 고기범(니콜라오)</p>
<p>세종성모내과</p> <p>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코</p>	<p>로운심리학습아카데미</p> <p>원장 : 이나현(아나스타시아) 소아정신과 전문의 언어/ 놀이/ 미술 심리치료 둔산 타임월드 근처 버거킹 3층 T. (042)488-2225</p>	<p>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p> <p>2/24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3/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T. (02)778-8565 라파엘여행사</p>



스테인드글라스 이야기 (28)

손승희(손소벽 막달레나) 유리화 작가

대전교구 태안성당 유리화 「기도」

- 제작년도 2007년
- 재료 유리화 (Antique Glass Painting)
- 크기 92x250x1.5cm
- 제작의도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어우러진 태안성당의 유리화는 신자들을 모델로 하여 묵주기도 20단을 완성하였다. 성경을 토대로 하는 묵주기도의 장면들을 본당 신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경험과 그 경험의 결과물이 유리화로 제작되었다. 성당의 개구쟁이가 천사가 되고 우리의 어머니 같은 표정의 신자가 성모 마리아의 모델이 되어.....

환희의 신비 1단 :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장엄한 인사를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따르셨습니다.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조용히 겸허하게 순종하는 마리아의 말씀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를 한번 더 되새겼으면 합니다.



▲ 환희의 신비 1단



◀ 태안본당 수태고지 촬영과정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1월 1일(수)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총대리 한정현 주교와 교구청 사제단이 함께한 가운데 봉헌됐다.

사랑의 나눔 2차 현금 전달식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12월 26일(목) 대림 제1주일과 자선 주일에 모금된 '사랑의 나눔 2차 현금'을 덕산순교성지(전담 구본국 신부)와 사회복지국(국장 노승환 신부)에 전달했다.

신평본당, 노은동본당 세례식



신평본당(주임 이의현 신부)은 12월 22일(주일) 10명의 예비자 세례식과 2명의 유아 세례식을 했다.

노은동본당(주임 김유정 신부)은 12월 25일(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중에 24명에 대한 세례식과 1명의 첫영성체를 했다.

온양풍기동본당 혼인 사진 전시회



온양풍기동본당(주임 양희창 신부)은 12월 29일(주일) 성가정 축일을 맞아 혼인 사진전을 열었다.

60년대 사진부터 다양한 혼인 사진 전시를 통하여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지속해 온 결혼생활을 돌이켜보며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연합회 교구장 주교와 간담회



여성연합회(담당 김경호 신부, 회장 서원자 글라라) 상임위원 월례회의가 12월 21일(토) 교구청 비안네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여성분과 상임위원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상임위원들이 리더로서 평신도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덕목"에 대해 교구장 김종수 주교의 말씀이 있었다.

전민동본당 자비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전민동본당(주임 변윤철 신부) 자비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가 12월 20일(금)에 있었다.

시작기도로 연차 총 친목회가 시작되었고 올 한 해 단원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 빠레시디움 단원 중 성실함의 으뜸인 개근한 단원에게 개근상과 아차상을 시상하고, 각 빠레시디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장기들을 준비하여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노은동본당 연도대회



노은동본당(주임 김유정 신부)은 11월 15일(금) 연도대회를 열었다.

이번 연도대회는 10개 조로 편성, 진행되었으며 총 242명의 교우가 참가하여 노은동본당 교우들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